

# 응답하라, 학창시절! 옛날교복 입고 동네 한바퀴

글 신다혜 객원기자(dhshin131@techm.kr) 사진 성혜련

## 졸리상점



권태식 졸리상점 대표는 "졸리상점은 단순히 교복 대여 서비스 제공장소가 아니라 추억을 소재로 하는 문화체험 공간"이라고 말했다.

개업한지 2년 남짓. 광고를 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빠른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하루 300벌의 수요를 충족하느라 애를 먹었다. 권태식 졸리상점 대표는 "2년 전 '복고'가 유행하면서 개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대표에 따르면 졸리상점을 찾는 고객층은 무척 다양하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60~70대 어르신들도 많이 방문한다. 학창시절 교복을 다시 입고보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학교 모습을 통해 향수를 느끼는 것. 권 대표는 "모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교복을 입고 이화동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세대들은 엄마세대의 학창시절을 상상하고 기성세대들은 옛 추억을 회상한다"고 전했다.

졸리상점 내·외부 벽면에는 다양한 손님들의 사진들로 빼곡하다. 졸리상점이 단순히 교복을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이화동의 옛 모습이 담긴 장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졸리상점의 인기는 단순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대 간 공감을 일깨워줬기 때문이 아닐까. ❶



서울 이화동의 명소 벽화마을 입구,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올라가면 낙산공원 초입길이 나타난다. 길 따라 얼마쯤 가면 범상치 않은 건물과 상점들이 내려다보인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오래된 목조건물은 1965년부터 1987년까지 야학교로 운영되던 곳으로 교실과 운동장을 그대로 살려 각각의 문화공간으로 태어났다. 그 중 하나인 졸리상점은 이화동의 명소로 자리 잡은 교복 대여점이다.

- 1 졸리상점 맞은편에 위치한 2호점은 교복을 입은 고객뿐만 아니라 이화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 2 이화동 졸리상점을 통해 젊은이들은 '옛것'이라는 새로움을, 기성세대들은 향수를 느낀다.
- 3 옛날 교복과 세라복뿐만 아니라 구두, 주변 명찰 등 향수를 일으키는 다양한 옛날 소품들을 대여한다.
- 4 졸리상점은 현재 800여벌의 교복을 전시하고 있으며 차이나, 세일러복부터 외국 전통의상까지 다양한 의류를 보유하고 있다.

